



순천시는 흑두루미 월동 범위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보성·고흥·여수·광양·하동 등 남해안벨트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 흑두루미 월동 범위 확대

순천만 중심 보성·고흥·여수·광양·하동 등으로 서식지 넓어져
개체수 전년비 33% 증가…갯벌·습지 어우러져 먹이활동 거점

순천시가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월동 범위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보성·고흥·여수·광양·하동 등 남해안벨트로 확대되며, 광역 서식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흑두루미가 행정 경계를 넘어 남해안권 역을 따라 '연결과 상생'의 생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2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두루미는 순천만 8100

여 마리, 여자만 1000여 마리 등 국내에서 총 9700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만 흑두루미 개체수는 습지복원과 서식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남해안 권역의 월동이동 네트워크 강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순천만과 여자만은 갯벌·습지·농경지가 어우러져 먹이활동과 휴식에 적합한 핵심 월동 거점으로 평가되며,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창공을 가르는 흑두루미는 하늘에 한 폭의 수목화를 그려내는 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협력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가치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을 한층 더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전국 주요 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국내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철새 현황을 파악해 철새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중증질환 아동 수도권 진료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50만원 지역 상품권 지급…연중 상시 운영

광양시는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암·희귀질환 등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관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2026년 기준 2008년생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관외 진료 1회당 ▲수도권 지역(서

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10만원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7만원이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을 통해 광양시립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교통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진료 1회당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신청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양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참고

하거나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797-4049)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수밖에 없다"며 "교통비 지원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58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아 관외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며, 대상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고립 위험 1인 가구에 '안부 꾸러미'

다음달 13일까지 47명 대상

건강·생활 환경 등 맞춤 서비스

구례군이 겨울철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을 살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안부확인 꾸러미 전달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활동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1인 가구 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체계적인 현장 확인을 위해 군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기동대원 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2개 조로 편성해 대상 가구를 직접 찾고 있다.

방문단은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 시 통합사례관리 및 관련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 시 생필품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동절기 안부 확인 꾸러미를 전달하며,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는 동절기 한파에 특히 취약하다"며 "군은



이번 안부 확인을 통해 조기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돌봄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오늘 여수시민회관…통합 추진 경과·향후 방향 시민 공유

여수시가 27일 오후 1시 30분 여수시민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주최 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지사가 비롯해 시·도 관계공무원,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는 시민 소통의 일환으로, 여수시는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이 행정통합 논의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여수시는 공청회에 앞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지역 영향과 ▲특별법안 특례 건의 과제(26개) ▲행정통합에 따른 여수시 역점 건의 사업(32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이익과 발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권한 배분 등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께서 공청회에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관광하고 철도 요금 할인 받고

'우주철도 999' 다음 달 출시…1곳에 가서 QR 인증해도 반값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고흥군이 오는 2월 코레일과 손잡고 철도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를 출시하며, '관광객 1천만 시대'를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코레일의 지역사랑 철도여행과 연계된 이 상품은 고흥을 찾는 철도 이용객이 지정된 관광지 6개소 중 한 곳만 방문해 QR 인증을 마쳐도 철도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군은 여행객이 지역에 머물며 고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에 집중했다. 고흥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여행객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여행 전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여행

후 고흥관광 홈페이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상품권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기차 여행이 주는 특유의 낭만과 함께 고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안의 비경과 우주를 향한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곳, 고흥. 이번 '우주철도 999' 사업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QR 인증 관광지 리스트는 고흥관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 산불 선제 대응 체계 가동

상황실 상시 운영…불법 소각 단속·초동 진화 대응 총력

보성군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 산불 위험 시기에 대비해 2026년 산불 대응 대체 전반을 점검하고, 범군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지역적 특성상 산림 면적이 넓고 해안·구릉 지형이 혼재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초동 진화 체계 구축 등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이상철 부군수와 산림보호 담당자들은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 임자 헬기 관계자들이 근무하는 계류장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

세, 진화 장비 상태, 항공 진화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울리, 보성군 산림사업과는 농산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 즉시 현장 확인 후 확인서를 청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보유한 산불 임자 헬기 최순연 기장은 "타 지자체에서 산불 진화 용수 투하 중 경사진 산지에서 지면 충격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 사례가 있었다"라며 "헬기 진입 시에는 주변 나무를 잡고 앉아 대기하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축산 농가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전염병 차단·환경 개선 등 45개 사업…다음 달 4일까지

곡성군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2026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축산 재해 예방부터 가축전염병 차단, 환경개선까지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며, 총 45개 사업에 34억 37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농업인), 농업법인 및 단체로, 히망자는 신청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한우 생활기반 구축(정액보관 질소통, 목걸임 장치, 사료조 등) ▲축산분야 예방 지원(폭염 피해 예방시설·장비, 축사 지붕 열차단재 등)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환경기기, 관정, 축사 환기 시스템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배합

기 칼날, 제조용 비닐랩, 예취기 등) ▲꽃벌 산업 육성(기자재, 설탕, 채밀기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악취저감제, 톱밥, 긁이시설, 풀링패드, 각종 기자재 등) ▲가축전염병 예방(폐사축 처리기, 예방약품, 백신, 소독기 등) 등으로, 농가별 여건에 맞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폭염 등 재해 대응과 방역, 악취 저감 등은 축산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